

# ‘그린·스마트·편 시티’ 조성 힘 모은다



## 김승남 “이재명 대선 승리 앞장서자”

### ‘광주 대전환’ 16개 핵심기관 참석 간담회 개최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정책 공유·발굴 논의

광주시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 대응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2022년 그린·스마트·편 시티 조성’ 산업정책 핵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9일 광주테크노파크와 인공지능산업융합단,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광주본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본부,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광주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 체감형 사업 발굴을 위

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여기관들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해 녹색 산업도시와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지역 산업 견인역할을 위해 지역기업과 단체 소통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광주시 산업여건은 뿌리산업, 자동차 전자가전 산업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광산업을 시작으로 접

단산업으로 성장해왔지만 지역기업이 자사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했다.

시는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 주력산업에 인공지능(AI)을 융합해 왔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자리잡으면 지역기업에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뉴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통한 사람중심 휴먼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형 3대 뉴딜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뉴딜사업 지역기업 비즈니스 역할 지원을 위해 임원 채용, 제2의 광주형일자리 휴먼뉴딜 준비를 위한 핵심기관 등과 TF 구성,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그동안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은 핵심기관 위주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중심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이 발굴되도록 핵심기관과 대응력을 강화해 그린·스마트·편 시티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2022, 민주당 4기 창출! 대선승리를 위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 소병철 의원 및 현역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남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하여 이재명 후보 홍보 영상 시청, 우수당원 시상 및 공명정대한 선거활동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선대위를 꾸리고, 공동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본부장 등 선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선승리를 위한 주요 조직을 구성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지역민과 당원들이 원팀으로 하나 돼 지역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끌어올리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결연하기 위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결의대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당선시켜야겠다는 당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김회재, 대선 필승 결의대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지역위원회가 지난 8일 여수시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20대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필승 결의대회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남겨둔 상황에서 제4기 민주당 창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민생 중심의 선거 운동을 결의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등 대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김회재 의원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앞



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수시의 비전을 가리키는 이정표”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도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여수시를 지역위원회가 앞장서 대선승리를 결연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여수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곳곳을 누비겠다”고 강조했다.

## 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출범

광주시는 지난 7일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회를 임명·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공개채용을 통해 상임옴부즈만 1명을 선정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전직 공무원 등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광주시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시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광주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9개 동 6만 4,000여 명이며,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 동, 1,000여 명이 추가된 것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보상지역 확대 등을 건의

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를 이상) 6만 원 ▲2종(90웨를 이상 95웨를 미만) 4만 5,000원 ▲3종(85웨를 이상 90웨를 미만) 3만 원이며, 전입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금액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통보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도,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 초과 달성

## 전국 최다 1,347호 보유...2030년까지 4,000호로 확대

전남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77개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새롭게 지정받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1,347개 농장을 보유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이 보유한 깨끗한 축산농장의 축종별 총 농가수는 한우 895농가, 닭 173농가, 돼지 127농

가, 오리 107농가, 젓소 45농가다.

2017년부터 지정을 시작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 조화 등 농가의 자발적 노력으로 축산악취를 저감해 축산환경이 우수한 농장이다.

전남지역 총 지정실적은 지난 2017년 101농가를 시작으로 2018년 253농

가, 2019년 379농가, 2020년 665농가, 2021년 1,347농가까지 늘었다.

전남도는 당초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개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 결집한 결과, 1년을 단축해 목표량을 훨씬 초과한 1,347호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오는 2030년까지 4,000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약취저감사업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클린농장 현판을 제작, 농장 입구에 부착해 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많은 협조 덕분에 깨끗한 축산농장 전국 1위 달성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2022 Vol.74 01

커버스토리: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시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지역특집: 1004선 공원화 사업

한국의 명장: 한국의 매사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커버스토리

시·그린 등 호남권 혁신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사업권 대표 전시장 우뚝내부 직원과 소통... 민·관·학·연 합심 전략적 마케팅지역에서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별 초대석】 김원익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리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민주교육 확대교과과정제 확대 2025년 입학·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재 시의원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천

【이달의 도서】 한강 작 ‘작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멸이기를 본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향저우아시안게임·카타르월드컵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한국의 명장] 매사냥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공과 매가 함께하는 합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그저

안수기의 건강백세

지역특집 1004선 공원화 사업

세계꽃 피는 할링섬 ‘신인공’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양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메일’ 취향 저격·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신뢰·친절·맛·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